

연맹활동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오찬면담

지난 2월 2일 서울 소재 식당에서 본 연맹의 김경동 위원장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장관급)과 오찬면담을 가지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본 면담에서 연맹 위원장은 사립대의 위기 상황에 대해 단위노조의 의견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며, 사립대 교직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향후 야기될 위기 극복을 위한 사립대연맹 차원의 연구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연맹위원장은 이를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공유하여 방향과 실천정책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본 면담에는 연맹부위원장(이철환)이 배석했다.

★ 이수진 의원 오찬면담, 고용보험 등 다양한 주제 논의

지난 2월 22일 김경동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오찬면담을 갖고 사립대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입학생 감소에 따른 사립대 운영 난관, 노동조합의 공공적 역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수진 의원은 고용안정과 노조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고, 본 연맹위원장은 향후 사립대 교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입법활동을 적극 돕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기로 했다. 본 면담에는 연맹부위원장이 배석하여 특히 비수도권 지방 사립대에 당면한 현실적 고충 해결을 제안했다.

★ 한국노총 202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지난 2월 22일 한국노총빌딩에서 한국노총 202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분과위원회가 진행되었고, 이어 24~25일 양일간 모바일 원격전자투표로 진행된 정기대의원대회가 성료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 등 7개 안건 모두 가결되었다. 먼저 22일 진행된 분과위원회에 연맹대표로 연맹부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성결대: 원예숙)이 참여하였다.

★ 제61차 중앙위원회 3월 하순 개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연되고 있던 제61차 연맹 중앙위원회가 3월 하순경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영남대 권기영 위원장(동남지역

본부장)은 지난 2월 17일 연맹의 요청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급 조직들이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번 중앙위원회는 본 연맹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제시할 중요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할 안건을 포함하고 있어 대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이므로 확정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연세대(신촌) 새 위원장과 상견례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연세대학교(신촌) 김도엽 위원장과 연맹 집행부는 서울지역본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2월 22일 저녁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연세대 노조사무실에서 상견례를 통해 각종 현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석식자리를 갖고 연세대 노조 발전과 연맹의 역할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가맹노조소식

☞ 경주 동국대...대학본부와 갈등 해소

경주 동국대(위원장: 이용수)가 대학 측과 수개월간 미교섭, 대화회피 등으로 인한 갈등을 순조롭게 해결했다. 이용수 위원장은 1월 14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후에야 대학 측이 대화에 직접, 성실히 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연세대(신촌) 김도엽 위원장...임기 시작

연세대학교(신촌) 김도엽 위원장이 이번 3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 연세대(미래) 조태환 위원장...임기 시작

연세대학교(미래) 조태환 위원장이 이번 3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 2020년도 단체 및 급여 협약서 체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단체 및 급여 협약을 체결한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다. △경기대 △대구대(이상 2개 노조)